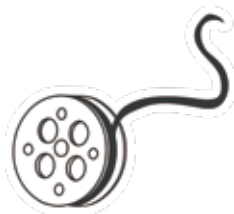


2020년 1년동안
40곳에서 만들어낸 영화 이야기.

우리 동네가 배경이 되고 내 친구가 주인공이 되는
영화문화교육 현장을 책 한 권에 담았습니다.

보여주는 영화에서 놀아주는 영화로!
영상나눔버스로 한뼘 더 넓은 세상을 바라봅니다.



2020 영상나눔버스 **시네놀이** 영남, 전남권역 사례집

진주시민미디어센터 | 경남 진주시 동부로 169번길 12 윈스타워 B동 1709호
055-748-7306 | contact@jjmedia.or.kr | jjmedia.or.kr

영상나눔버스가 도시마다 품는 우리 문화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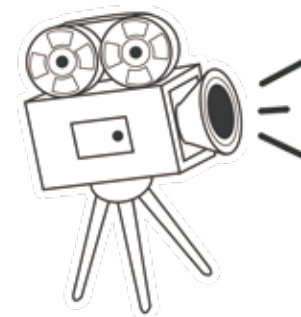
kofic 한국영화진흥위원회
jjm 진주시민미디어센터



REC

방방곡곡 버스타고 떠나는 영화놀이

2020 영상나눔버스 **시네놀이** 영남, 전남권역 사례집



kofic 영화진흥위원회
Korean Film Counc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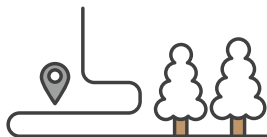
jjm 진주시민 미디어센터

REC



방방곡곡 버스타고 떠나는 영화놀이

2020 영상나눔버스 시네놀이 영남, 전남권역 사례집



목 차

1. 들어가며	1
2. 영상나눔버스 2020 여행지도	2
3. 영상나눔버스가 뭔데요?	4
4. 같이 타고 가볼까요?	8
진주 예술인모임 '라예'	산청 산청군작은영화관
산청 산엔청복지관	진주 멋진지역아동센터
산청 간디중학교	고성 소가야중학교
창원 어깨동무학교	창원 한들산들협동조합
진주 소문날마을학교	남해 별난교육연구소
하동 노량초등학교	진주 대곡중학교
통영 광도초등학교	전남 장성 동화마을학교
경북 영덕 원황초등학교	진주 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진주 제일중학교	창원 꿈자람마을학교
사천 사천시학부모회	고성 고성초등학교
사천 사천시청소년문화의집	밀양 세종중학교
5. 체험을 마치고 나서	44



필요한 곳에 달려가는 영상나눔버스가 되길

진주시민미디어센터 정현아

다들 안녕히 잘 지내셨나요? 건강하나, 잘 지내고 있냐. 수많은 안부 인사가 오갔던 2020년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했다가 코로나 19로 연기하고 또 취소하기까지를 무한 반복하며 지내오시지 않았을까 감히 짐작해봅니다. 영상나눔버스도 코로나 시국에 정말 많은 걱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형태의 영상나눔버스교육은 더욱 주춤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나눔버스는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를 다녀왔고 총 540명의 지역민을 온/오프라인으로 만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횟수로 총 730여명을 만났던 것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수치요. 평균 15명의 인원을 받던 것에서 절반 정도의 인원로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교육 인원은 줄었습니다만 교육에 대한 만족과 성취는 여느 해 못지않았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더욱 소외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영유아들. 그리고 인터넷 환경에 따라, 스마트기기의 유무에 따라 개인의 교육환경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미디어 빈부격차’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소외되는 이들은 더욱 소외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영상나눔버스는 조심스럽게 수업을 진행했고 교육이 필요한 곳에서 먼저 연락을 주셨습니다. 2020년은 특히 처음으로 경상북도 권역까지 나가 더 교육이 필요한 곳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일반적인 교육과정이 아닌 대안학교에서 자연과 삶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을 하며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만났고 일흔이 넘는 나이에 초등학교에 입학해 한글을 배우며 시인을 꿈꾸고 있는 영덕 원황초등학교의 1학년 할머니도 만났습니다. 카메라를 쥐는 게 불편하지만, 화면에 서로가 나온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던 산청의 성인 장애인분들. 서로가 만든 영상이 끝나고 연신 탄성을 자아내던 초등학교 친구들. 처음에는 부끄러워하지만, 나중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촬영에 임하던 중학생 친구들까지. 영상나눔버스는 540명의 시민을 만났고 총 40 곳의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영화와 영상은 내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아주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어렵다고 느껴져서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을 수 있지만 영상나눔버스를 경험한 많은 분들은 영상을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고 앞으로도 일상에서해보겠다고 결심을 하지요. 영상나눔버스를 경험한 많은 분들이 영화나 영상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되는 것에 두려움을 없애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영상으로 담아내는 데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영상으로 영화로 공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런 짧지만 강렬한 체험 교육이 더욱 활발히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는 2020년 영상나눔버스가 어디에서 어떤 수업을 했는지 엿볼 수 있게 이야기를 담아놓았습니다.

진주시민미디어센터는 이 영상나눔버스를 타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2200여 명의 지역민들을 만났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일지 모르겠지만 경남도에 살고있는 334만여명이라는 전체 인구에 비하면 1%도 안 되는 비율입니다. 여전히 영상나눔버스가 아직 가야할 곳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영상나눔버스는 지역에서 영화문화교육이 필요한 곳으로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들이 살아 숨 쉬고 있을지, 기대를 한 아름 안고 출발해보겠습니다. 안전하고 즐겁게요!

영상나눔버스 2020 여행지도

경상남도

진주시 두 번째마을학교 (성인)
진주시 대곡중학교 (청소년)
진주시 멋진지역아동센터 (아동)
진주시 방과후교사노동조합 (성인)
진주시 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 (성인)
진주시 소문날마을학교 (아동)
진주시 예술인 모임 '라에' (가족)

사천시 사천시 학부모회 (아동)
사천시 사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성인)
사천시 사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동)

남해군 남해여성회 (가족)
남해군 별산교육연구소 (가족)

고성군 고성초등학교 (아동)
고성군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성인)
고성군 소가야중학교 (청소년)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장애인)
산청군 간디학교 (청소년)
산청군 작은영화관 (아동)

통영시 광도초등학교 (아동)

하동군 노량초등학교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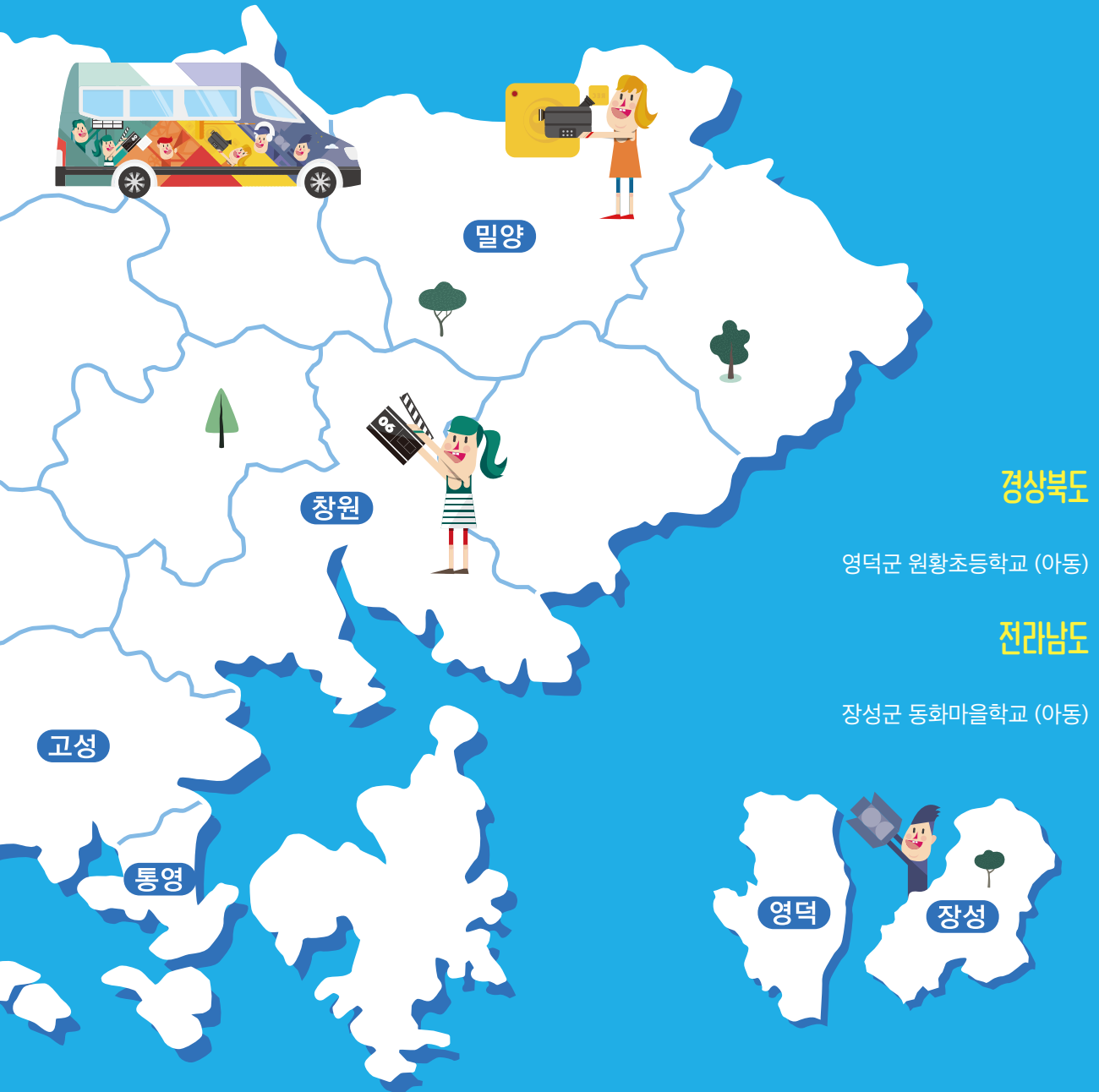
창원시 어깨동무학교 (아동)
창원시 둔덕경로당 (노인)
창원시 한들산들협동조합 (아동)
창원시 꿈자람마을학교 (아동)
창원시 사동1구마을회관 (노인)

밀양시 밀양세종중학교 (청소년)



2020년 영상나눔버스는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총 40곳을 방문했습니다.



영상나눔버스가 뭔데요?

영상나눔버스는 영화를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직접 영화를 만들어보고 체험해보는 교육을 말해요.
하루 2시간 또는 3시간동안 영화와 노는 체험을 진행해요.

영화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요.
단편영화도,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장르가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해볼 수는 없겠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영화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영상나눔버스는 열심히 교육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섯가지 장면으로 극영화를 만들어보는 **5컷 영화 만들기**
여러장의 사진을 찍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만들기**
그린스크린, 블루스크린 앞에서 촬영하고 원하는 배경 속으로 들어가보는 **합성체험**
영화 속에 나오는 모든 소리를 만드는 폴리야티스트, 성우가 되어보는 **소리를 만드는 마법사**

이외에도 교육을 희망하는 단체에서 원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으로 맞춰서 교육하고 있어요.

바로 이 버스에 체험할 거리들을 가득 싣고
경남 지역 그리고 전남, 경북까지 달려간답니다.



말로만 들으니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래 QR코드로 접속하시면 영상나눔버스를 간접적으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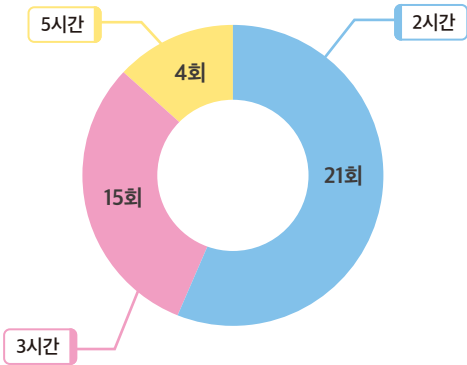
누구나 감독이 될 수 있는 버스가 있다?!
(2020.7.16.)
kbs 뉴스 경남

생방송 진주는 지금 (2020.6.16.)
kbs 진주 라디오
*12분 50초부터 영상나눔버스 관련 소식을 들어보실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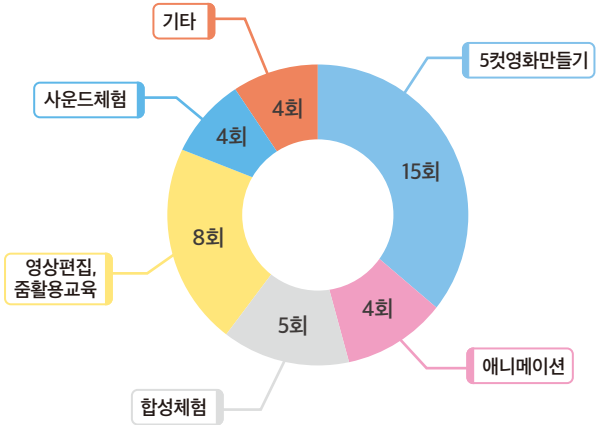
2020년 5월 12일 ~ 2020년 12월 31일 (7개월)

▶▶ 교육 횟수 : 40회 ▶▶ 교육 인원 : 54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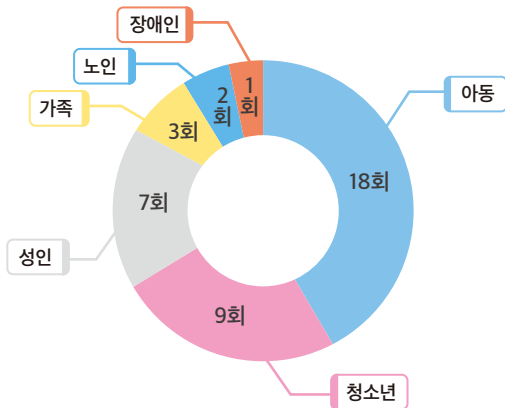
교육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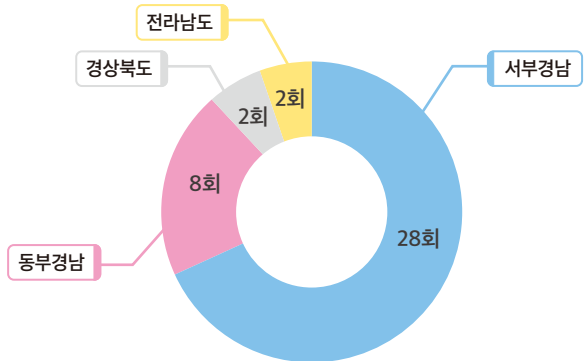
교육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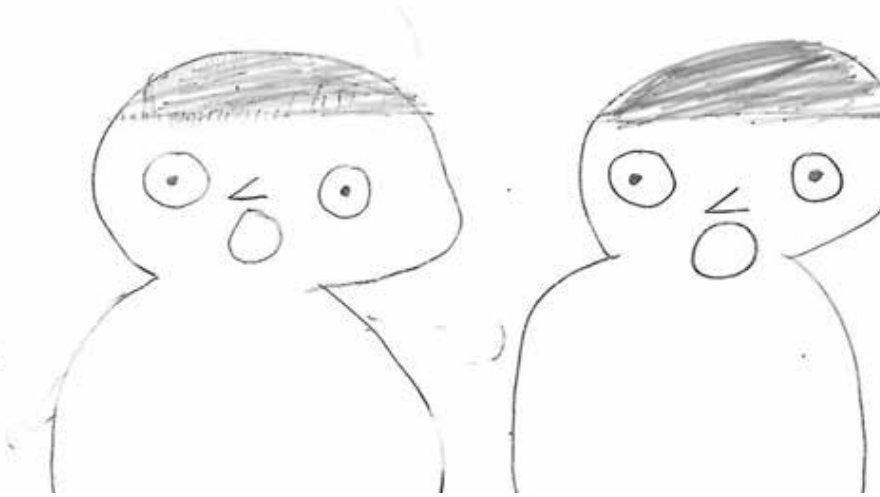
교육대상



지역



영상 나눔 버스 시네노이
리



어렵게 여겨졌던 영상제작을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좋았고 즐거웠던 시간입니다

위 그림은 실제 수업 때 수강생이 직접 그린 스토리보드(콘티)*의 일부입니다.

* 스토리보드(콘티): 영상이나 영화의 촬영 전 장면의 초안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

같이 타고 가볼까요?

진주
예술인모임
'라에'

산청
산엔청복지관

산청
간디중학교

진주
소문날마을학교

창원
어깨동무학교

하동
노량초등학교

통영
광도초등학교

경북 영덕
원항초등학교

사천
사천시 청소년
문화의집

사천
사천시학부모회

진주
제일중학교

교육단체 50,60대 농업인

장 소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교육대상 가족 (성인, 아동)

교육내용 5컷 영화 만들기



2020 영상나눔버스 참여단체 모집 신청 글이 올라가자마자 부리나케 센터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벌써 마감 되었나요?” 활기찬 목소리로 전화를 주신 예술인모임 ‘라예’의 조유주 선생님. 이런 교육이 너무 필요했었다며 그동안의 갈증을 소소하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지역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술인 선생님들과 아이들까지, 열다섯명 남짓이 모여 함께 5컷으로 이루어진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집 밖을 나가지 못하니 집에서 각자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보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아이들부터 다들 우아한 모습을 보이며 살고 있지만 현실은 로또 당첨 시간을 기다린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예술인 선생님들까지.

까르르 까르르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현장이었어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장비를 들고 나갈 때까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해주시던 예술인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생각나네요.

역시 나와 내가 아는 사람이 나오는 영화가 가장 즐겁습니다. 영화라는 새로운 소재로 가족이 함께 얘기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어떤 이야기를 만들었을까요? 함께 감상해보시죠!

QR코드로 접속해 결과물을 확인하세요.



5컷영화
<집에서 재밌게 노는 방법>



-촬영: 배서은
-연기: 언니역 장윤서 / 동생역 남가림



5컷영화
<1등은 내꺼야>



-연기: 조*미, 조*아, 문*순



5컷영화
<희망비행기>



-촬영: 박피디
-연기: 울적한 여인, 커피 여인



5컷영화
<순간이동>



-촬영: 강창휘, 배지호
-연기: 김유민, 김유진

교육단체 산엔청복지관

장 소 경남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교육대상 장애인

교육내용 합성체험



영상나눔버스 교육은 한 번도 안들은 곳은 있어도, 한 번만 들은 곳은 없다고 할 정도로 2018년부터 꾸준히 내년 강의를 기약하고 계시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산엔청복지관도 그 중 하나입니다. 2018년 우연히 처음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후 꾸준히 영상나눔버스를 기다려주셨어요. 첫 해에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둘째 해에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연기를 직접 따라해보셨고, 올해는 합성체험에 도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100명 즈음은 들어갈 수 있는 큰 강당 공간을 내어주셔서 코로나 시국에 조심히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 속 명장면을 보고 열심히 대사 연습을 해 따라하셨어요. 대사를 따라 읽고 연기를 하는 것이 어색하고 왠지 부끄럽기도 하지만 결과물을 보니 누구보다 뿌듯합니다. 잘했냐 잘못했냐가 아니라, 이 순간이 즐거운 추억이 자리잡았길 바라봅니다.

교육단체 간디학교

장 소 경남 산청군 간디학교

교육대상 청소년

교육내용 5컷 영화 만들기



유난히도 덥던 날. 폭염주의보가 내리는 가운데 산청 간디학교를 찾았습니다. 간디학교는 대안학교입니다. 가만히 서있어도 땀이 흐르는 더운 날씨이지만 환경을 생각해 에어컨보다는 부채와 손수건을 하나씩 쥐고,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세상을 배워가고 있는 열다섯명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산 골짜기, 오롯이 우리들만 있는 공간에서 아이들은 모든 공간을 활용해서 촬영을 신나게 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다보니 택배를 늘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자신들의 이야기에서부터 영화가 시작됩니다. 더운 날, 짜증한번 내지 않고 즐겁게 수업에 참여했던 아이들의 순수한 열정이 저희를 더욱 힘나게 했던 하루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만들었을까요? 함께 감상해보시죠!

QR코드로 접속해 결과물을 확인하세요.



5컷영화
<승건이가 쓰아올린 축구공>



5컷영화
<아이스크림 뽀빠이>

-촬영: 손재오
-연기: 매점주인 - 정민영
아이들 - 김민서, 연지우



5컷영화
<동현아 잘자라>

-촬영: 권동현
-연기: 의사-박민표 / 보호자-서우숨
-편집: 서우숨



5컷영화
<자전거의 주인은 누구>

-촬영: 이경
-연기: 현진, 일한

교육단체 어깨동무학교

장 소 경남 창원시 어깨동무학교

교육대상 아동, 청소년

교육내용 5컷 영화 만들기



창원의 도심가를 지나 아파트 단지를 따라 가면 큰 교회 건물 안에 어깨동무학교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학교 입구에서 반겨주는 카페는 이 학교의 학생들이 운영하는 공간이기도 하다고 해요. 대안학교인 어깨동무학교에서, 학교의 이름처럼 멋진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교육을 진행할 때 대부분 비슷한 연령끼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앎의 정도도, 표현의 정도도, 이해의 정도도 다르다고 판단해서 인데요. 오늘은 이 판단을 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나이의 친구부터 고3 나이까지의 친구들이 한 모듬으로 잘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결과물까지 잘 만들어냈습니다.

무엇이든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지요. 친구들의 결과물도 훌륭했지만 큰 아이가 작은 아이에게, 작은 아이가 큰 아이에게 모두 서로 존중하며 협동하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교육단체 소문날마을학교

장 소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교육대상 청소년

교육내용 합성체험



수업 시작 전임에도 이미 아이들이 모여 앉아 무언가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가 아닌 마을에서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하는 ‘소문날마을학교’ 친구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모여 합성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1인 크리에이터와 유튜브 방송이 익숙한 친구들에게 그린스크린과 블루스크린은 화면에서는 익히 보았지만 실제로 접한 경험은 많이 없는, 낯설지만 익숙한 프로그램입니다. 실시간으로 합성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합성의 원리를 이해하고 영화 속에서, 혹은 유튜브 속에서 어떻게 합성이 이루어지는지 새롭게 또 즐겁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날 즈음 수업을 신청하신 마을학교 선생님께서는 그린스크린이 얼마나 하는지 가격을 물어보셨습니다. 구비해두고 꾸준히 써보고싶다는 이야기를 설렘 가득한 말투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영상나눔버스는 3시간이면 끝나지만, 오늘의 경험으로 지역 곳곳에 영화문화가 조금씩 뿌리내리길 바랍니다.

영상 나눔 버스 시네노이
리



영상이 힘들기만 한 줄 알았는데
친구랑 더 친해지고 재미있었다

위 그림은 실제 수업 때 수강생이 직접 그린 스토리보드(콘티)*의 일부입니다.

* 스토리보드(콘티): 영상이나 영화의 촬영 전 장면의 초안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

교육단체 노량초등학교

장 소 경남 하동군 노량초등학교

교육대상 아동

교육내용 5컷 영화 만들기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해전으로 잘 알려져있는 노량해전. 400여년 전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노량으로 달려갔습니다. 학교의 이름만 듣고 당연히 남해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남해와 가까운 하동 끝자락에 자리잡은 학교였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보이는 바닷가의 멋진 풍경과 푸른 바다만큼 밝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전교생이 30여명인데요. 이 아이들 중에서는 그림그리기, 게임 등 이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미 영상을 만들어본 친구들도, 만들어보지 않은 친구들에게도 '이야기가 있는 영상', '영화'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학교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아 한 편의 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영상을 보면서 왁자지껄 이야기를 나누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영화와 영상이 주는 에너지를 다시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만들었을까요? 함께 감상해보시죠!

QR코드로 접속해 결과물을 확인하세요.



5컷영화
<하루>



-출연: 김환희, 김재원, 이해련
-촬영: 이해련 -편집: 이해련, 김환희
-아이디어: 이해련, 김환희, 김재원



5컷영화
<공>



-출연: 공, 승수
-감독 및 촬영: 소영 -슬레이트: 예은
-조연: 선생님, 승현 -편집: 모두



5컷영화
<소리>



-출연: 김범규, 김찬희, 최유리
-슬레이트: 최유리, 김범규
-촬영: 강상훈

교육단체 광도초등학교

장 소 경남 통영시 광도초등학교

교육대상 아동

교육내용 5컷 영화 만들기



영상나눔버스로 자주 다녔던 지역 중 하나가 바로 통영입니다. 통영에서 늘 청소년, 성인분들을 만났었고 오늘은 처음으로 초등학생 친구들을 만나러 다녀왔습니다. 6학년 1반, 2반 친구들을 이틀을 나누어 만났습니다.

영상나눔버스 수업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5컷 영화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에 익숙하지 않지만 금새 통통튀는 아이디어들을 제시하고 촬영할 때에는 누구보다 진지하게 각자의 역할에 임합니다. 영화는 현실에 있는 이야기를 다루기도 하지만 때로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들도 만들어내지요. 열세살 감독님들이 바라본 학교와 세상에 대한 이야기 덕분에 우리가 사는 삶을 한번 더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교육단체 원황초등학교

장 소 경북 영덕군 원황초등학교

교육대상 아동

교육내용 합성체험, 5컷영화만들기



영상나눔버스를 탄 이래로 가장 먼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바로 경상북도 영덕으로요! 학교를 가는 길에 펼쳐진 멋진 동해바다를 보며 어떤 학생들을 만날 수 있을까 기대했습니다. 전교생이 30명이 안되는 작은 학교였어요. 유치원과 학교가 붙어있고 저학년, 고학년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저학년 친구들 수업을 시작하려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함께 들어오셨죠. 저를 비롯한 강사님들은 모두 보호자라고 생각했지만 할머니는 보호자가 아니라 올해 1학년에 입학한 학생이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열정에 나이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죠. 할머니와 10살 남짓한 아이들이 함께 수업을 듣는 모습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모든 수업을 끝내고 버스를 타고 떠나려는데 아이들이 모두 나와서 손을 흔들려주던 모습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해봅니다. 영상나눔버스로 행복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단체 진주영재원

장 소 경남 진주시 제일중학교

교육대상 청소년

교육내용 애니딩작 워크숍



진주 제일중학교에서 기대에 찬 눈으로 앉아있는 중학생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영재원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했지요. 학습으로서는 더 나무랄데 없이 모든 것에 열심인, 성실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영상나눔버스를 운영하고 처음으로 긴 시간, 이틀동안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원래는 한가지의 체험만 할 수 있었다면, 이 수업에서는 스톱모션과 합성체험까지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볼 수 있었어요.

코로나19를 잘 이겨내자는 아이들의 소망을 담은 영상이 만들어졌어요. 직접 배경 이미지와 소품을 만들고 촬영까지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에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마스크를 벗고 잔디밭에서 뛰어다니며 춤추는 부분은 코로나19로 지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상나눔버스는 내 생각을 영상으로 표현해내는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체험에서 여러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인정받음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두려움을 깰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내가 유튜브처럼 스톱모션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다.

위 그림은 실제 수업 때 수강생이 직접 그린 스토리보드(콘티)*의 일부입니다.

* 스토리보드(콘티): 영상이나 영화의 촬영 전 장면의 초안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

교육단체 사천시학부모회

장 소 경남 사천시 책마루도서관

교육대상 아동

교육내용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만들기



사천의 한 아파트단지 내 책마루도서관에 삼삼오오 아이들이 모여듭니다. 오늘의 영상나눔버스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나무스틱, 솔방울, 하얀 솜, 스티커 등을 활용해 자신의 이름을 만들어보고 조금씩 움직여 스톱모션으로 만들어봅니다. 사진을 많이 찍을수록 더욱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이 되기 때문에 팔이 아픈데에도 열심히 집중해서 찍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결과물을 보며 ‘우와~’하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멋진 배경음악이 더해지면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니다. 결과물을 볼 때 왠지 부끄럽기도 하지만 열심히 노력한 만큼 뿌듯함도 느끼는 시간이 되었길.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이 끝날 때는 아쉬워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영상나눔버스가 지속적인 영상/영화문화교육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되길 바라봅니다.

교육단체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장 소 경남 사천시

교육대상 성인

교육내용 영상제작체험 및 라이브방송 체험



코로나19로 모든 분들께서 잡혀있던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시게 되었지요. 그 안에서 ‘온라인’, ‘실시간 중계’의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중계를 해본적도 없고 그렇다고 포기하기엔 아쉬운, 사천시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지도사 선생님들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청소년들과 만날 수 없으니 영상을 찍는 방법을 배워서 전달하고 싶다, 발표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해보고 싶다는 것이었지요.

이들에 나눠서 3시간씩, 누구보다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시는 모습에 감명받았습니다. 젠가 게임, 병뚜껑 날리기 게임, 그림 그리기 등 청소년들에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를 직접 영상으로 보여주시고, 라이브방송도 어색하지만 곧잘 하시는 선생님들. 오늘의 배움이 잘 전달되어 청소년들에게 필요하고 즐거운 것들을 더욱 잘 전해드릴 수 있길 바라봅니다.

이영숙 (사천청소년문화의집)



2020년은 코로나19로 많은 변화와 도전을 요구받는 시기였다. 2020년 1월 말에 발생한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해 뉴스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이게 내 삶에 무슨 영향이 있을까?라며 막연하게 생각했다.

2002년 사스때에는 뉴스에서 말이 많았지만 그냥 그렇게 지나갔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일때도 처음에 조금 심각했지만 곧 백신이 나와 해결이 되었다. 2015년 메르스일때도 다중이용시설에 발열체크 도입이 있었지만 또 그렇게 극복해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국내에서 환자 발생 한 달 만에 기관 휴관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가져왔다. 그때가 2020년 2월 20일이었다. 기관이 청소년 사업을 정비하며 아이들과 만날 준비를 한창하고 있을 때였고 이전의 경험으로 볼 때 이리다가 조만간 정상 운영이 될 것이라며 운영 재개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보낸 시간이 두달이 되어가자 슬슬 불안함이 올라왔다. 이리다가 정말 올해 준비한 일들을 시작해보지도 못하는 것은 아닌가? 또 외부에서 기관 종사자들이 일은 하지 않고 급여만 받아가는 것으로 오해는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샘들과 모여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가지씩 제안하고 직접 진행해보기로 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면서 누구나 모바일로 유튜브가 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천명의 구독자가 없으면 라이브로 할 수 없고, PC환경에서 라이브로 운영해야 하는 것을 알았고 온라인 플랫폼 운영에 미숙한 샘들을 청소년들이 도와 첫방송을 시작했다. 방송을 하면 온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줄 알았는데 이걸 우리 생각이었다, 이렇게 우리의 첫 프로그램은 생방으로 2시간 진행하였지만 극소수의 참여자가 함께 했다.

이를 계기로 청소년과 소통하기 위한 미디어콘텐츠와 플랫폼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몸으로 체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미디어 제작을 위한 도구나 편집을 위한 앱, 제작된 콘텐츠를 활용할 플랫폼에 대해 알려줄 기관 단체를 찾다가 진주시민미디어센터를 알게되었다. 저희 기관 사정을 설명하고 짧은시간 안에 콘텐츠 제작 및 활용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니 센터에서 운영하는 '영상나눔버스'사업에 참여해 볼 것을 권유하셨다. 강사님과 전화미팅에서 저희 기관에서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도움받고자하는 부분이 명확할수록 도움이 많이 될것이라데...미디어콘텐츠 제작이 처음이니 기기 활용법을 많이 알아야 할지 편집을 잘해야할지 버벅대는 저를 위해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워낙 다양한 촬영이 가능하니 편집에 기능을 다양하게 배우는 것이 도움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2회기 걸친 수업이라 첫날에는 2인 1조로 영상기획 후 촬영, 편집까지...마스크사용법에 대해 유튜브처럼 해볼려고 노력했지만 떨리는 목소리, 갈팡질팡하는 시선처리 그림에도 불구하고 편집을 통해 퀄리티(?)가 있는 완성품을 내놓을 수가 있었다. 그때의 대견함이란 무엇에도 견줄 수 없었다. 이 교육을 계기로 사전촬영 후 플랫폼에 탑재하는 프로그램에서 편집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2회기 수업은 팀별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위한 OBS스튜디오를 익히고 콘텐츠기획을 통해 역할을 배분하고 실시간 스트리밍을 직접 해보는 활동으로 사전제작에 비해 더 많은 에너지와 정교함이 필요한 활동이었다. 처음하는 사람치고는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는 강사님의 목소리에 힘입어 단순하고 줄렬한 콘텐츠를 버라이어티 예능 생방처럼 진행했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이 활동을 통해 역량이 한순간에 업그레이드 되진 않았지만 적어도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경험과 더불어 하면 된다는 자신감 내지는 오기가 생기는 시간이었다.

이 미디어 수업을 계기로 하반기에 사천청소년문화의집의 사업들은 절반 이상 온라인 플랫폼이나 SNS기반으로 진행되었고 2021년도 사업의 절반은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활동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한 온라인 공간의 확장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는 2020년을 보냈다. 아직도 코로나19는 우리와 함께 현재진행형으로 움직이고 있으므로 온라인 공간, 미디어콘텐츠 제작에 대한 탐구는 더 계속되어야 할 것 같다. 이 탐구의 계기를 만들어주시고 저희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신 진주시민미디어센터와 정주샘, 현아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타고 가볼까요?

산청
산청군
작은영화관

진주
멋진지역
이동센터

고성
소기아중학교

남해
별난교육연구소

창원
한들산들
협동조합

진주
대곡중학교

전남 장성
동화마을학교

진주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밀양
세종중학교

고성
고성초등학교

창원
꿈자람마을학교

교육단체 산청지역아동센터

장 소 경남 산청군 작은영화관

교육대상 아동

교육내용 합성체험



산청에는 '작은영화관'이 있습니다. 롯데시네마나 cgv와 같은 대형 영화관이 들어서지 않는 지역에서도 영화를 볼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이 되는데요. 영상나눔버스는 산청에 체육센터 2층에 자리잡은 작은영화관을 찾았습니다. '우리동네 영화축제'라는 컨셉으로 평소보다 더 많은 작품들을 상영하는, 축제의 기간에 영상나눔버스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산청 지역의 아동센터에서 15명 정도의 아이들이 와서 '합성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배경 중에 어떤 배경에서 합성을 할지 선택하고 그린스크린과 블루스크린 앞에서 멋진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평소에 영상나눔버스 스크린보다 훨씬 큰 영화관 화면으로 결과물을 보니 더욱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경험으로 영화와 좀 더 친해지는 시간이 되었길, 그리고 지역의 작은영화관도 동네의 사랑방 같은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육단체 멋진지역아동센터

장 소 경남 진주시 멋진지역아동센터

교육대상 아동, 청소년

교육내용 5컷 영화 만들기



“멋진, 지역아동센터요?” 처음 전화가 왔을 때 이름부터 멋진 이 아동센터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진주의 서쪽 끝자락에 있는 멋진지역아동센터는 비닐하우스를 개조해 여러 가지 활동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까지. 팀을 이루어 5컷영화 만들기를 진행했는데요. 선생님이 던져준 하나의 문장에서 각 팀에서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같은 문장을 던져도 한번도 같은 이야기로 전개된 적이 없었던 것이 강사님에게도 정말 신기한 경험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열심히 촬영해 임하던 친구들! 결과물도 대 만족입니다. 아이들의 상상력이 무한히 펼쳐지는 시간. 영상나눔버스는 오늘도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교육단체 소가야중학교

장 소 경남 고성군 소가야중학교

교육대상 청소년

교육내용 5컷 영화 만들기



소가야중학교는 고성의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넓은 공간을 활용해 마음껏 촬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영상나눔버스가 매년 찾아가는 곳이기도 하지요. 영상나눔버스의 가장 인기 커리큘럼인 '5컷영화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이야기를 짜는 과정이 가장 막막하고 어렵지만 한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던져지면 그때부터는 모두 신나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5컷의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우고 나면 아이들은 늘상 보는 2시간짜리 영화의 제작과정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과 시간이 투자된 작업인지를 깨닫게 되지요.

오늘의 경험이 영화의 제작과정을 이해하고 영화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는 바탕이 되었길 바랍니다.

교육단체 한들산들협동조합

장 소 경남 창원시

교육대상 아동

교육내용 소리를 만드는 마법사



영상나눔버스 커리큘럼 중에서 또 사랑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소리를 만드는 마법사’입니다. 영화 속 모든 소리를 만드는 폴리아트스트, 성우가 되어보는 더빙체험이 더해진 수업인데요. 아이들은 강사님께서 준비한 재료와 주변의 물건들을 활용해 소리를 만들어봅니다. 막연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비슷한 소리가 만들어졌을 때의 그 기분은 상상 이상으로 더욱 기쁩니다.

애니메이션 <소나기>의 일부 장면의 소리를 전부 만들어보는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가방을 내려놓는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패딩을 깔고 그 위에 무게감 있는 책을 떨어뜨려보고, 풀숲 소리를 내기 위해 물티슈 케이스를 테이블에 비벼보기도 합니다.

미래의 영화인이 오늘 수업을 듣지 않았을까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소셜미디어에서 본 영상나눔버스 소식.

학교, 마을학교, 주민소모임, 복지관, 비영리단체, 경남 곳곳을 찾아가 영화문화체험교육을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그마한 버스가 달려오는 상상을 해보니 우리 동네에도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원 봉림동에서는 봉림동마을학교 한들산들은 5학년들로 구성된 영상동아리가 있습니다.

매주 하나의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한 결과물 공유하고 있었지요.

5컷 영화만들기, 애니메이션 만들기, 클레이 애니 만들기, 소리를 만드는 마법사, 나는 영화해설가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하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쪼비대면 활동을 하다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모인 친구들, 직접 만난다는 설레임과 새로운 영상교육을 받는다는 설레임이 더해졌던 것 같습니다.

진주시민미디어센터의 선생님과 영상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폴리아트스트의 세계와 애니메이션 소나기와 함께 사운드 만들기과 목소리 더빙까지 체험했습니다.

아이들이 주변의 여러 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사운드 찾기를 진행했고 비슷한 소리를 찾을 때마다 기뻐했습니다. 목소리 녹음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즐기면서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아이들이 직접 녹음한 사운드와 목소리가 입혀진 영상을 보며 부끄럽기도 뿌듯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영상나눔버스는 마을에서 하던 영상활동과는 또 다른 재미와 경험을 주고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경험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미디어가 일상화된 요즘 그 미디어를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수동적인 미디어 이용자가 아닌 미디어 생산자로서의 주체성,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그 미디어에 무엇을 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영상나눔버스가 경남의 곳곳을 누벼 의미있는 영상경험들로 일상이 더 풍부해졌으면 합니다.

영상나눔버스 시네놀이

교육단체 별난교육연구소

장 소 경남 남해군

교육대상 가족 (성인, 아동)

교육내용 5컷 영화 만들기



올해 영상나눔버스는 코로나19로 더 많은 지역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수업을 제안하기에도 조심스러운 시기니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남해에서 또 한번 영상나눔버스를 찾아주셨습니다. 남해여성회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 다른 단체에서도 교육을 받고싶다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별난교육연구소의 정기영 선생님을 통해 연구소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단위의 교육은 부모님과 아이의 의견이 맞지 않아 서먹해지거나 혹은 부모님께서 주도적으로 제작을 다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수업은 아이들과 부모님이 서로 즐겁게 얘기나누고 소통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영화를 만들면서 조금 더 친밀해지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길 바랍니다.

정기영 (별난교육연구소 소장)



저희 기관은 남해군에 위치한 별난교육연구소입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로서 지역 인재 계발과 지역사회 주민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성회를 통해 미디어 교육을 먼저 접하게 되었는데, 너무 유익해서 자체적으로도 신청을 하였습니다. 안타깝게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인원이 모이지도 못했고, 더욱이 조심스러웠던 12월이어서 조출하게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초등학생 3명, 학부모 4명이 모였지만 불행 중 다행인 듯 오히려 소수 정예의 인원이 몰입과 집중을 하기에는 더 좋았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5컷 영화 만들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시나리오 기획, 영상촬영 및 편집의 과정을 간략하지만 상징적인 배움의 시간으로 갖었습니다. 강사 선생님은 다른 친구들이 이미 만든 영상도 보여주었고, 영화 내용의 참신함과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들과 어떤 주제의 시나리오를 정할까를 고민해 보면서, 가족간의 대화도 되었고,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며, 요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도 잠시나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직접 촬영을 하러 외부에 나가서는 서로의 연기하는 모습에 웃고, 모니터링하면서 또 한번 웃기도 하였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즐거웠습니다. 편집에 관한 팁도 많이 알게 되었고, 완성된 작품을 보면서 뿌듯함과 성취감도 느껴졌습니다. 여기저기 자랑도 하고 싶을 정도여서 교육이 끝난 이후 밴드 여러 곳에 올려 보았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영화제작의 과정을 간단하게 맛보면서 배움과 경험의 자산이 된 듯 하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 되었던 부분을 영화화해 봄으로 서로의 관점과 이해를 좀 더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또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남해군 청소년들과 학부모, 지역주민이 이런 미디어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남해군에는 군단위 소도시라 이런 교육을 받을 곳이 마땅이 없어 필요성이 더 절실합니다. 그래도 옆 동네 진주에서 이렇게 찾아오는 교육을 해 주신 덕에 잊지 못할 추억과 작품을 남겼습니다. 달리는 영상 버스가 앞으로도 계속 꾸우욱~~~ 구석구석 누벼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사람 여기 한 명 더 있습니다. 애써 주신 강사 선생님과 진주시민미디어센터에 감사 드립니다!!!

영상나눔버스 시네놀이

교육단체 대곡중학교

장 소 경남 진주시 대곡중학교

교육대상 청소년

교육내용 5컷 영화 만들기



대곡중학교는 진주에서도 끝자락에 있는 대곡면에 위치해있었으나 최근 학교가 이전을 하면서 충무공동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새 학교에서 만나게된 친구들은 중3, 고등학교 입학 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1반과 2반을 나누어 동시에 수업을 진행했는데, 연기를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다는 보조강사 선생님의 말대로 모두가 결과물에 흠뻑 빠져서 봤어요. 늘 보는 친구들의 모습이 스크린으로 비춰질 때 더욱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역시 내가 아는 사람이 나오는 영화가 가장 즐겁습니다. 이런 즐거운 경험을 오늘 이후로는 친구들이 스스로 해볼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교육단체 동화마을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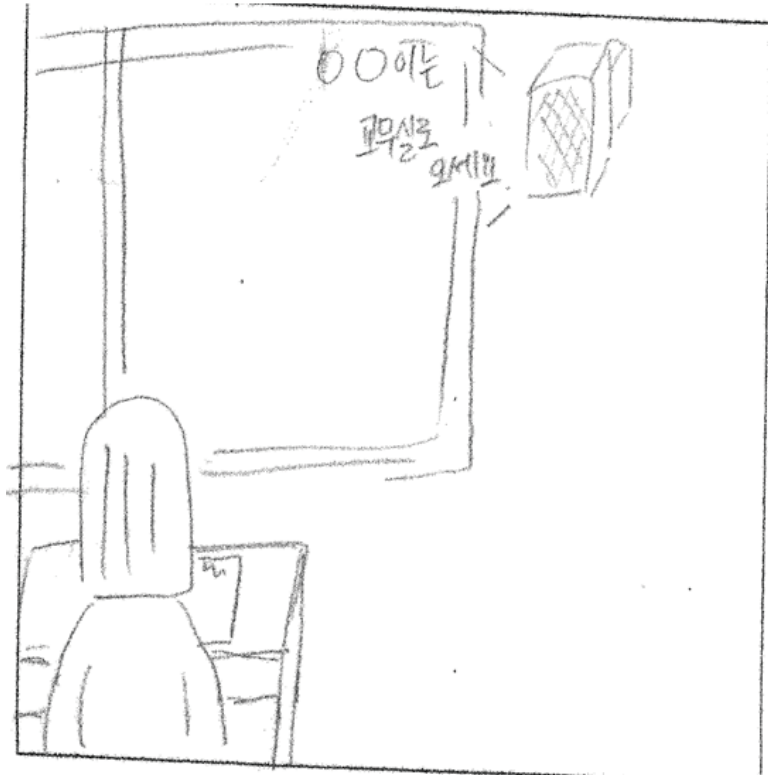
장 소 경남 장성군 동화초등학교

교육대상 아동

교육내용 소리를 만드는 마법사



영상나눔버스로 전남 지역을 방문하곤 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갈 수 없을거라 생각했으나 멀리 장성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화마을학교라는 곳에서요. 2시간을 달려 도착한 학교는 알록달록한 빛으로 영상나눔버스를 반겨주었습니다. 3,4학년 5,6학년을 두 반으로 나누어 '소리를 만드는 마법사'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소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풍선으로 파도소리를 만들기도 하고 행주에 물을 묻혀 철판거리는 소리를 표현했습니다. 목소리 더빙을 위해서 조용한 영상나눔버스 실내 공간을 활용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을 하나씩 살펴보고 끝내고는 모두가 큰 박수를 치며 마쳤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니 눈이 내리더군요. 따뜻한 경남지역에서는 잘 보지 못하는 눈이었어요. 영상나눔버스에게도 동화 같은 하루였습니다. 감사해요!



어려웠던 점은 없다. 너무 재밌어서 배가 아프다.

위 그림은 실제 수업 때 수강생이 직접 그린 스토리보드(콘티)*의 일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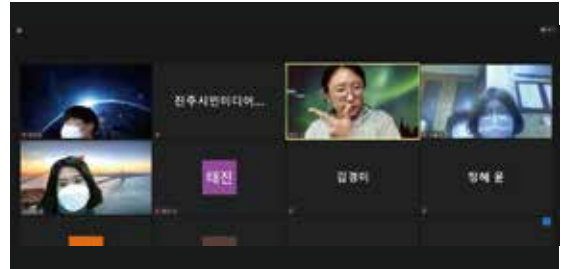
*스토리보드(콘티): 영상이나 영화의 촬영 전 장면의 초안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

교육단체 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

장 소 온라인 비대면 수업

교육대상 성인

교육내용 줌 활용교육



코로나19가 더욱 심해지면서 영상나눔버스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영상나눔버스 교육을 시도했습니다. 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참여자를 모아주셨고 비대면 교육/회의에 자주 활용되는 '줌' 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 시간에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줌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실제로 각자가 줌 프로그램을 활용해보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오프라인이라면 직접 소통하며 어려운 부분을 알려드릴 수 있을테지만 온라인에서는 그런 빠른 피드백이 오고갈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수업을 시도해보았다는 것, 그리고 모두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주시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도 온라인교육에 대한 고민을 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단체 꿈자람마을학교

장 소 경남 창원시

교육대상 아동

교육내용 소리를 만드는 마법사,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만들기



꿈자람마을학교는 창원 성산구 안민동에 위치한 마을학교입니다. 주택가 사이에 있는 마을학교에서 오전, 오후에 거쳐 다른 친구들에게 2가지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오전에는 소리를 함께 만들어보고 오후에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멋진 아이디어를 냈고 영상나눔버스 수업 중 손에 꼽힐만큼 결과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소리를 만드는 마법사 수업에서는 테이프 2가지를 비벼서 연필 쓰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등 아이들의 창의력이 빛나는 수업이었습니다.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은 직접 그림을 그리고 오리고 만들어야하고 또 그것을 일일이 사진으로 찍어야하기 때문에 오래걸리고 힘든 작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 누구보다 집중하며 자신들의 작품을 완성해냈습니다. 작은 영화인들의 반짝이던 눈을 잊지 못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꿈자람마을학교!

결과물 들여다보기

어떤 이야기를 만들었을까요? 함께 감상해보시죠!

QR코드로 접속해 결과물을 확인하세요.



<상처치료를하기 스톱모션>



제작: 정다원, 정유림, 조연우, 정예준



<비행기 이륙장면 스톱모션>



배경: 심우찬, 최문혁 글: 최태규
비행기: 한영민



<돌고래들의 노래>



제작: 태윤, 민서, 예주

김인정 (꿈자람 안민마을학교 교사)



영상나눔버스는 우리가 아이들과 소통하는 법을 알려주는 교육으로, 2020년 12월 저희 마을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2가지 수업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오전은 '소리를 만드는 마법사' 수업으로, 영상과 어울리는 소리를 탐색하여 찾아내고, 그 소리를 선택하여 녹음하고, 녹음된 소리를 영상과 합성하여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완성시켜냈습니다. 분명, 시작할 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었는데, 수업이 끝날 때는 이미 멀티미디어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나만의 애니만들기' 수업으로, 애니메이션 주제를 먼저 정하고, 정해진 공간의 촬영구도에서 캐릭터를 만들어 조금씩 움직임을 주듯, 사진을 여러장 찍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처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우리아이들은 프로애니메이션작가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로 인해, 마을학교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안타까움을, 영상나눔버스를 통해 2020년 마무리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진로체험(직업체험)을 한 듯 해서, 많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미처 수업을 듣지 못한 아이들에게도 즐거운 시간을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나눔버스 시너지놀이

교육단체 고성초등학교

장 소 경남 고성군 고성초등학교

교육대상 아동

교육내용 5컷 영화 만들기



인구 5만이 살고 있는 고성군의 중심가에 있는 고성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작은 학교일거라생각했지만 한 학년에 6개의 반이 있는 큰 학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친구들은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었어요. 유튜브와 영상에 아주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영상나눔버스 강사님들을 환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5컷 영화 만들기를 진행했고 영상에 대한 어색함은 잠시, 열연하던 친구들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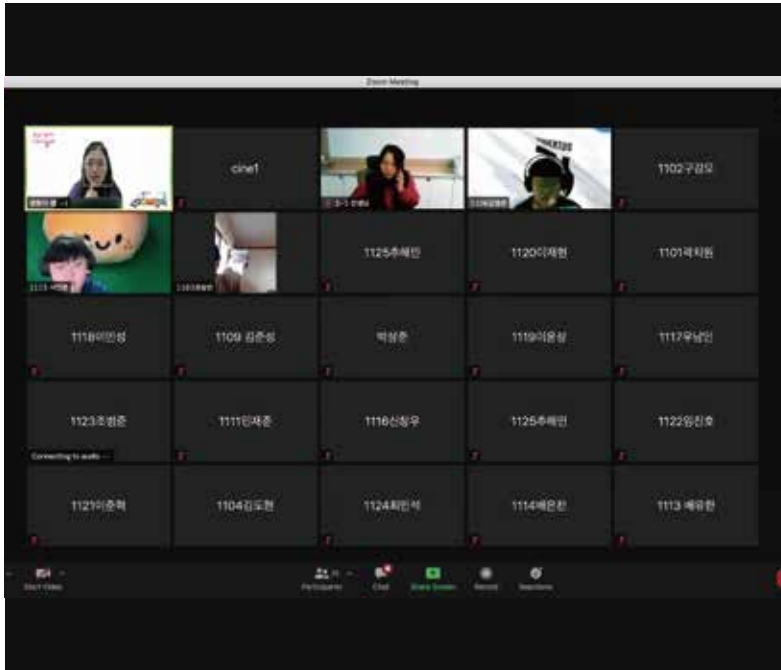
때때로 아이들의 아이디어와 연기력에 강사님들도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영상나눔버스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꿈을 키워나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교육단체 밀양세종중학교

장 소 온라인 비대면 교육

교육대상 청소년

교육내용 이미지 놀이+ 오디오 드라마 만들기



영상나눔버스 교육은 찾아가서 한다는 의미가 가장 크죠. 하지만 코로나19로 이미 잡혀있는 교육들도 취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밀양 세종중학교는 일찍부터 교육을 받고싶다고 연락을 주셔서 온라인으로 이 교육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5컷영화 만들기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모둠활동이 아닌, 개별활동으로 직접 집에서 가지고 있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이미지를 편집하여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보고 소셜 속 일부를 가지고 와서 더빙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만 활발히 진행할 수는 없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해준 밀양 세종중학교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우리 다음에는 오프라인으로 만나요!

체험을 마치고 나서 - 교육평가 설문조사 결과

1.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 친구들이랑 같이 할 때 같이 웃으면서 한 점
- 우리가 직접 이야기를 만들어서 직접 찍고 편집하고 그런 점이 가장 좋았고 재미있었다.
- 평소에 잘하지 못하는 영상편집을 해보았던 점이 좋았다.
-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만들어 보았던 것
- 선생님들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셨고 해보고 싶었던 것이었는데 해서 좋았다
- 영화를 찍는 게 너무 좋았다.
- 직접 촬영, 연기, 편집을 한 것
- 친구들끼리 영화를 만들어서 좋았다
- 동영상 편집 어플 사용법을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손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직접 영상을 찍어보고 편집을 하는 점이 좋았다. 실습형이라 더 집중된 것 같다.
- 실시간 영상을 진행해본 적이 없어서 막막했는데 기본 시스템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OBS 사용법)
- 감독했던 거
- 재밌었고, 우리만의 영화를 만드는 게 정말 좋았다.
- 친구들과 같이 의논하고 작품을 만든 것
- 친한 친구들과 어울려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
- 즐겁게 영화를 찍는데 서로 협동한 점
- 물건을 이용해서 소리를 만들 때
- 새로운 직업을 알게 되었고 이 내용에 흥미가 생겼다.

2.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 영상을 자연스럽게 잇는 것.
- 시간이 짧아서 빨리빨리 해야 하는 점이 어려웠다.
- 내용을 구상하던 것.
- 촬영할 때 카메라가 흔들려서 그게 조금 어려웠다.
- 손이 많이 떨렸다.
- 편집하는 게 어려웠다.
- 너무 웃었더니 NG가 나서 힘들었다.
- 친구들과 의견이 맞지 않았던 거.
- 부족한 교육 시간(교육 시간 부족으로 영상 녹화, 편집에 대한 이해가 어려움)
- 없다. 너무 재밌어서 배가 아프다
- 없다. 이해하기 쉬웠다
- 배우 역으로 연기할 때
- 계획한 것을 직접 촬영하는데 막상 잘 안 맞을 때
- 더빙 타이밍 맞추기
- 소리 내면서 녹음하는 게 어려웠다.
- 연기하려다 웃긴 부분이 나올 때 웃을까 봐
- 친구들과 의견이 조금씩 달랐다. 주변 소리가 시끄러웠고 다른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돌아다녀서 힘들었다.
- 결정하는 것

3. 교육을 마치고 나에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 생각이 더 넓어진 것 같아
- 편집을 좀 잘하게 된 느낌?
- 영상편집이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점
- 촬영하고 편집을 하는 것에 관심이 생겼다.
- 영상이 힘들기만 한 줄 알았는데 친구랑 더 친해지고 재미있었다
- 영화를 만드는 법을 알았다.
- 의견을 잘 맞춰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 촬영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영상을 더 잘 찍고 싶어졌다
- 자신감 조금 UP
- 생각이 깊어졌다.
- “해보자!” 하는 자신감
- 동영상 어플을 사용할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일단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음
- 생각만 하고 있던 것들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 실시간 방송에 대해 입문을 하게 됨.
- 협동력이 높아진 것 같다.
- 친구들과 협동하는 것
- 편집실력이 늘었다.
- 영상의 퀄리티를 조금 더 높여서 찍을 수 있을 것 같다.
- 영화에 나오는 효과음을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졌다.
- 이 분야에 관심이 생김
- 소리를 더 집중해 듣게 되었다.
- 유튜브 때 도움이 될 것 같다.
- 소리를 어떻게 낼지 알았고 소리에 관심이 많아졌다.
- 스톱모션을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 구도를 잘 잡을 수 있게 됨
- 포기를 안 할 것 같다.
- 미디어가 재밌다.
- 많은 친구들과 더 대화를 할 수 있었다.

4. 다음에 더 배워보고 싶은 것은?

-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아 뭐든 해보고 싶다.
- 오늘 배운 내용을 실제 더해보면 배워보고 싶은 것들이 생길 것 같다
- 더 자세하게 연기하는 것이다.
- 영상편집에 대해
- 심오 단계의 영상 녹화, 편집 기술
- 전문적인 영화 촬영
- 시간을 길게 잡아 우리 반의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
- 편집을 자세하게 배워보고 싶다.
- 촬영 위주로 배워보고 싶다.
- 소리 만드는 걸 자세하게 배우고 싶어요
- 영화에 소리를 넣어 보고 싶다.
- 더 다양한 소리를 녹음해 보고 싶다.
- 더 길고 더 자연스럽게 스톱모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 5컷보다 더 많은 컷으로 영상을 만들고 싶다.
- 브이로그 만드는 법
- 단편 영화
- 드라마 찍는 것

- 다음번에 다시 만나용♥~
- 오늘 엄청 엄청 재미있었어요 >.<
- 알찬 수업이었다.
- 재미있고 다음에 또 해보고 싶다.
- 너무 재미있었고 다음에도 하고 싶다.
-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같이 도와주신 선생님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 다음에 또 와주세요
- 연기 어렵네!!
- 2학기에 또 해주세요!
- 너무너무 짱 재미있었어요
- 또 해요! 다시 만나요!
- 재밌고 지루하지 않게 배워서 좋았습니다.
-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하고 싶고 힘들면서 정말 재미있었다.
- 다음에도 와주세요!! 오늘 정말 재미있었던 시간이었어요
- 정말 재미있었고 이런 영상을 찍어보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다.
- 다음에도 조 편성을 해서 또 하고 싶기도 하면서 그땐 드라마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 소리 만들기 체험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 선생님이 설명을 잘 이해하게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재미있었어요
- 시간이 조금 적어서 아쉬웠지만 영상 나눔 버스 시네놀이를 다음에 또 하고 싶다.
- 오늘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와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 재밌었지만, 어려웠어요
- 생각보다 잘 나와서 뿌듯했다.
- 오늘 배울 때 아주 재미있었어요
- 이번 교육이 정말 재미있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더 체험 해보고 싶다.
- 다른 학년들도 해봤으면 좋을 것 같다.
-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다.
- 할 수 없었던 것을 해보아서 좋았다.
- 엄청 재밌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많다.







방방곡곡 버스타고 떠나는 영화놀이

2020 영상나눔버스 시키놀이 영남, 전남권역 사례집

주최: 영화진흥위원회

주관: 진주시민미디어센터

기획: 정현아

구성: 정현아

사진: 남정훈, 이고은, 이진솔

글: 정현아

표지 그림 : 권경희

편집/디자인 : 아트인기획

- 2020 영상나눔버스 **시네놀이** 영남, 전남권역 사례집 -

